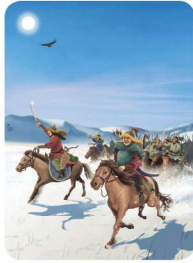


세계사를 바꾼 결정적 순간들

Turning Points in World History

1장. 몽골 전쟁

p.10~11



칼, 단검, 그리고 화살들을 든 몽골 병사들을 태운 말의 발굽들이 우레 같은 소리를 내며 눈 덮인 스텝 지대, 즉 초원을 가로질러 내달렸다. 금나라 황제가 몽골 사신을 죽였던 것이었다. 칭기즈 칸은 금나라 황

제에게 그를 겁쟁이라고 칭하는 전갈을 보냈었다. 이것은 전쟁을 의미했다! 칭기즈 칸 휘하의 장수들이 전투에 앞장섰다. 그들은 적을 포위했다. 금나라 병사들은 자신들이 몽골군보다 더 낫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그렇게 확신해서는 안 됐다.

p.12~13

몽골 병사들은 금나라군 속으로 화살을 쏘았다. 그 화살들은 사람들과 말들을 죽였다. 그들은 활쏘기를 끝



내자, 말을 타고 멀어져갔다. 금나라군은 한숨 돌릴 시간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들이 틀렸다. 첫 번째 몽골 병사들의 물결 뒤를 바로 이어서 또 다른 병사들의 물결이 몰려왔다. 그들은 활을 쏘았고 더 많은 사람을 죽였다.

이제 금나라군은 겁을 먹었다. 그들은 왜 몽골 병사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두려운 존재들인지를 직접 겪으면서 알게 되었다. 금나라 병사들은 달아나려고

했다. 그러나 달아날 곳이 없었다. 몽골군은 금나라 병사들을 향해 계속 화살을 쏘아댔다. 생존자들은 상처를 입고 약해졌지만, 항복하지는 않았다. 마침내, 몽골군은 돌진해 들어가 칼과 더 많은 화살로 그들을 몰살했다. 1211년의 야호령 전투 이후에 금나라 황제는 그의 휘하 장수 중 한 명에 의해 살해되었다. 이것이 중국에서의 금나라 멸망의 시초였다. 이것은 또한 위대한 칭기즈 칸의 마지막 전쟁의 군사 작전 가운데 하나이기도 했다.

p.14~15

칭기즈 칸의 어린 시절



테무진이란 소년이 태어났을 때, 초원인 몽골의 스텝 지대의 부족간 전투들은 하나의 생활 방식이었다. 테무진은 칭기즈 칸이 어린 시절에 썼던 이름이었다. 부족들은 끊임없이 전쟁

했다. 만약 누군가가 다른 부족에 있는 어떤 사람에게 잘못한다면, 그 일이 잊히는 경우는 결코 없었다. 심지어는 몇 년 후에라도, 그들은 양감음으로 공격을 당할 수 있었다. 테무진은 스텝 지대 사람들을 위해서 다른 미래를 원했다. 그는 부족들을 통합하기를 원했다.

그러나 소년 테무진은 고된 삶을 살았다. 그는 스텝 지대의 모든 아이처럼 다리가 등자에 달을 만큼 충분히 길어 지지마자 말타기와 활 쏘는 법을 배웠다! 그 결과, 그는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사냥하고 전투에서 싸울 수 있었다. 테무진이 여덟 살이나 아홉 살쯤 되



던 무렵, 그의 아버지가 타타르족의 일원에게 독살을 당했다. 테무진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마자, 그와 그의 가족은 자기네 일족들로부터 쫓겨났다. 그것은 그의 어머니가 다른 부족 출신이기 때문이었다. 그의 가족은 홀로 이동했다. 이따금 그들은 다른 일족들 가까이에서 야영을 하기도 했다.

p.16~17



자무카라는 이름의 소년이 그 일족들 중 한 곳에 살고 있었다. 테무진과 자무카는 함께 놀았고, 가장 친한 친구

가 되었다. 그들의 우정은 아주 굳건해서, 어느 날 그들은 화살촉으로 자신들의 손을 그어 *안다*, 즉 의형제가 되었다.

스텝 지대에서는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장남이 가장이 된다. 테무진 가족의 장남은 벡테르였다. 벡테르는 테무진에게 못되게 굴었다. 어느 날, 테무진은 마침내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충분히 겪었다. 그는 벡테르에게 화살을 쏘고는 죽게 내버려 두었다. 이 행위는 벌을 받지 않고 넘어가지 않았다. 테무진의 옛 일족이자, 그의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를 내쫓았던 바로 그 일족이 돌아와 그를 생포했다. 그들은 그를 동물 멍에에 묶어 노예로 만들었다. 이 일로부터 테무진은 사람들, 심지어는 친구들과 동맹자들조차 완전히 믿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배웠다. 그것은 오로지 그에게 고통을 초래할 뿐이었다. 어느 날 밤, 그는 탈출했다. 농부 한 사람이 말 한 필을 주어 그를 도와주었다. 그는 말을 타고 스텝 지대로 나가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는 싸움과 사냥 기술들을 활용하여 살아남아 자신의 부족을 세웠다.

p.18~19

테무진은 열여섯 살 때, 보르테와 결혼했다. 그녀의 아버지는 그들에게 결혼 선물로 귀한 흑담비 모피를 주었다. 테무진은 케레이트라는 강력한 부족과 동맹 부족이 되기를 원했다. 이 부족의 지도자 토그릴은 테무진의 아버지와 의형제인 *안다*였었다. 테무진은

토그릴에게 흑담비 모피를 주고, 필요할 때는 언제나라도 그의 부족을 위해 싸우겠노라고 말했다. 그 답례로 토그릴은 테무진과 그의 부족을 지켜주겠다고 약속했다. 대무진은 훗날 강력한 동맹자들이 되는 새로운 친구들을 사귀었다. 이 일이 있던 지 얼마 지나지 않아서 보르테가 메르키트 부족에게 납치되었다. 토그릴과 자무카는 그녀를 되찾아오기 위해 4만 명을 보냈다. 그들은 함성을 질러대며 작은 마을을 에워쌌다. “나는 테무진이다!” 가장 큰 말에 올라탄 사내가 외쳤다. “내 아내 보르테를 찾으러 이곳에 왔다!”



p.20~21



그와 동시에 화살들이 공중을 날아갔다. 몇몇 상처 입은 사내들이 얼어붙은 땅에 쓰러졌다. 테무진은 말에서 뛰어내렸다. 그는 큰소리로 보르테를 불렀고, 그녀는 그의 품으로 쏙살같이 달려왔다. 그는 널찍한 어깨에 그녀를 둘러메고 자신의 말로 뛰어내렸다. 테무진과 그의 병사들이 그 마을 주위를 재빠르게 돌면서 메르키트 부족을 죽이는 동안, 보르테는 꼭 잡고 있었다. 그들은 또한 말들과 황금 허리띠들도 가지고 돌아왔다. 그들이 테무진의 야영지로 돌아오자, 승리를 축하하고 보르테의 귀환을 환영하기 위해 성대한 잔치가 준비되어 있었다.

“복수는 나의 몫이다!” 테무진이 맹렬히 타오르는 모닥불 옆에 서서 외쳤다. “나는 나의 적에게 정의를 실현했다! 이것에 대해 들은 자들이 모두 나의 힘을 두려워하여 머리를 조아릴지어다!” 그 부하들과 그들의 가족은 음식을 먹고 술을 마시면서 테무진과 자신들의 부족에 환호했다. 후에, 테무진은 부르칸 칼



둔, 즉 신의 산 정상에 오를 것이었다. 그곳에서 그는 대지, 태양, 그리고 하늘의 정령들에게 염소젖을 뿌리고 기도할 것이었다. 곧이어, 보르테는 아기를 낳았다. 데무진은 그 아이에게 주치라는 이름을 지어 주었다. 그는 첫 아들이었다.

p.22~23

자무카와 데무진은 옆에서 함께 싸우며 오랫동안 친구로 지냈다. 1189년, 데무진은 몽골인들의 지도자로 지명되었다. 이것이 자무카를 매우 화나게 했다. 그는 자신이 지도자가 되고 싶었다. 그는 데무진의 부족을 공격했다. 그는 데무진의 부하 몇 명을 산 채로 삼았다. 데무진은 복수를 다짐했다. 그는 수년에 걸쳐 다른 부족들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일을 실행했다. 그 사람들을 포로나 노예로 만드는 대신에 그는 그 사람들이 자신에게 충성하겠다고 하면, 그들을 그의 부족 속으로 받아들였다. 만약 저항한다면, 그들은 죽임을 당했다. 그러나 데무진 편에 서기로 동의하면, 그는 그들을 살려주었다. 이전에 이렇게 했던 몽골 지도자는 결코 없었다.



그는 1201년에 타타르족과 싸우려 갔을 때 또 하나 새로운 일을 했다. 전투 전에 데무진은 새로운 규율들을 정했다. 데무진은 그 전투에서의 모든 전리품은 그에게 주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것을 병사들 사이에 공평하게 나눠주려는 것이었다. 전사한 병사들의 가족들도 공평한 몫을 받을 것이었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그를 믿고 존경했다.

p.24~25

이제 데무진은 어마어마한 병력의 군대를 보유했다. 그는 자신의 군대를 효율적이고 강하게 만들기 위해 체계화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이를 하기 위해 십진법을 이용했다. 1개 분대는 열 명으로 구성되었고, 1개 중대는 백 명으로 구성했으며, 1개 대대는 천 명으로 구성했다. 이들 각각에는 병사들에 의해 선출된 지휘관들이 있었다. 1개 투멘에는 만 명

의 병사가 소속되었다. 데무진은 각 투멘의 지휘관을 선발했다. 그들이 직접 데무진에게 보고했다. 이제 그는 이들 최고 부하들에게만 명령하면 되었고, 그것은 신속하게 수천 수만 명의 병사에 의해 실행되었다.

곧 데무진은 8만 병력의 사령관이 되었다. 그는 토그릴에게 자신의 장남 주치가 토그릴의 딸 중 한 명과 결혼할 수 있는지를 묻는 전갈을 보냈다. 이렇게 하면 두 사람의 힘이 강력해질 것이었다. 토그릴은 동의했고, 그들은 스텝 지대에서 만날 계획들을 세웠다. 그러나 토그릴은 데무진군에 대한 기습 공격을 계획했다. 그는 데무진이 스텝 지대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던 것이다. 충직한 앙치기가 데무진에게 그 공격에 대해 경고했다. 데무진과 그의 부하들은 신속하게 말을 몰아 토그릴의 대규모 병력을 급습했다. 토그릴은 도주하려다가 죽임을 당했다.



p.26~27

그러나 자무카의 군대도 데무진을 죽이기 위해 기다리고 있었다. 그래서 데무진은 병사들 각자에게 다섯 개의 모닥불을 피우게 했다. 어둠 속에서, 이것은 데무진이 실제로 보유하고 있던 병사들보다 마치 다섯 배는 더 많이 보유한 것처럼 보일 터였다. 그는 동이 뜨기 전에 아주 여러 방향에서 공격을 감행했다. 그는 이것을 '회전초 대형'이라고 불렀다. 아침에 그는 여러 대열의 병사들을 전진시켰다. 각 대열의 병사들은 자무카군에 화살을 쏠 것이었고, 곧이어 그다음 대열이 화살을 쏠 것이었다. 이것은 '호수 대형'이라고 불렀다. 병사들의 대열은 호수 위의 물결처럼 멈추지 않았다. 자무카의 병사들은 대부분 죽임을 당했다. 데무진은 이것들처럼 많은 다른 전술들을 만들어냈다. 일부 지휘관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그것들을 사용하고 있다.

자무카와 남은 그의 병사들은 숲속으로 도주했다. 자무카의 병사 중 일부는 데무진에게 투항했다. 그

들은 그에게 자무카가 어디에 숨어 있는지 말해 주었다. 테무진은 자무카를 생포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무카의 부하들을 겁쟁이라고 생각했기 때



문에 그들 모두를 죽였다. 자무카는 테무진에게 자신도 죽어서 시체를 묻어달라고 청했다. 그는 테무진에게 죽어서 자신이 그를 지켜보겠노라고 말했다. 테무진은 그의 소원을 들어주었다.

p.28~29

테무진의 새로운 칭호



1년 후인 1206년, 오논강에서의 몽골인 대집회에서 사람들은 테무진에게 새로운 칭호를 주었다. 그는 공식적으로 칭기즈 칸이라는 전설적인 군 지도자가 되었다. 칸은 통치자를 의미한다. 역사가들은 칭기즈라는 이름이 무슨 의미인지

확실히는 모른다.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큰 바다'를 의미한다고 한다. 또 어떤 학자들은 그것이 '최고'를 의미한다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칭기즈 칸이 '최고 지배자'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딱 들어맞는 칭호였다. 이제, 칭기즈 칸은 수천 마일에 걸쳐 뻗어 있는 제국을 가졌다. 그는 자신의 제국에 사는 백만 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대몽골국이라는 명칭을 붙여주었다.

그는 또한 칭기즈 칸 대법령을 만들었다. 그것은 법전이었다. 그의 법규들은 모든 지역 부족들의 법들보다 더 위에 있었다. 대부분의 법법 행위는 사형으로 처벌할 수 있었다. 만약 어떤 사람이 거짓말을 하거나, 재산을 훔치거나, 누군가를 납치하면 그는 사형되었다. 그 법규들은 엄하고 잔혹했다. 칭기즈 칸은 자기 민족을 위해 좋은 일도 많이 했다. 그는 부족들 간의 우편 업무를 실시했다. 대략 20마일마다 말로 배달하는 우체국이 하나씩 있었다. 그는 수렵

시간을 정해 놓아 어린 동물들이 자랄 시간을 갖도록 했다. 그는 또 몽골인들을 위한 문자 언어도 창제했다. 전투에서의 그의 승리들은 몽골 부족들의 재산을 불렸다.

p.30~31

이 모든 것들을 이루고 나서도 칭기즈 칸은 만족하지 않았다. 금나라 동안인 1211년, 6만 5천 명의 몽골 병사들이 고비 사막을 가로질러 중국으로 건너가 공격했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여 도시의 문들을 열게 했다. 몽골 병사들은 보급물자를 떨어뜨려 놓는 말을 타고 사라졌다. 사람들은 그 군대가 퇴각한



것으로 생각했다. 그들은 보급물자를 가져오기 위해 문들을 열었다가 돌아온 몽골 병사들의 공격을

받았다.

1215년 무렵, 대몽골국은 많은 재물을 갖고 있었다. 칭기즈 칸은 이슬람 도시인 화리즘과 교역을하기를 원했다. 그는 술탄 무하마드 2세에게 자신은 전쟁을 원치 않으며, 그들과 재물을 교역하고 싶다는 전갈을 보냈다. 그는 오프라르라는 도시로 금, 은, 그리고 옥을 가득 실은 대상을 보냈다. 그 도시의 태수가 대상에 있던 사람들을 죽였다. 칭기즈 칸은 술탄 무하마드 2세에게 사신들을 보냈다. 그들은 사과를 요구했다. 술탄은 그들도 죽였다! 그 복수로, 칭기즈 칸은 10만 명의 부하를 이끌고 화리즘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 그 술탄의 제국을 빼앗아버렸다. 이제, 그 몽골국은 훨씬 더 광대해졌다.



p.32~33

그러나 칭기즈 칸은 늙어가고 있었다. 그는 살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제국을 자기와 보르테의 아들들에게 나누어주었다. 그



는 자기 아들 오고타이를 다음 칸으로 지명했다. 역사가들은 그가 오고타이를 후계자로 선택한 것은 오고타이가 훌륭한 협상가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1226년, 칭기즈 칸은 중국으로 가던 길에 말에서 내동댕이쳐져 부상을 입었다.

그는 6개월 후에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매장지는 800년 넘게 알려지지 않았다.

칭기즈 칸의 사후, 그의 아들들과 손자들은 아시아 대륙의 거의 4분의 1을 차지할 때까지 대몽골국을 확장했다! 오늘날, 그는 위대한 지도자로 알려져 있다. 비록 그가 잔혹한 전사였고, 철권으로 자신의 법을 집행했지만, 그는 또한 자기 민족을 위해 좋은 것들도 많이 제공했다. 그는 많은 부족 출신의 사람들을 사신의 통치 아래에 화해시켰다. 그는 다양한 부족과 문화 출신의 사람들을 함께 조화롭게 살 수 있도록 해 주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만들어냈다. 그는 스텝 지대의 부족들을 하나로 통합하겠다는 꿈을 이루었던 것이다.



2장. 백만 달러짜리 성경

p.36~37



빛이 들어오도록 만든 작은 창이 하나뿐인 어두운 방 안에서 몇몇 사람들이 요하네스가 아주 작은 금속 조각들을 나무틀 안에 놓을 때 지켜보고 있었다. 그 조각들이 정해진 자리에 앉혀지자, 그는 동그런 잉크 방망이 두 개를 이용하여 검정 유성 잉크를 그 금속 조각들 위에 가볍게 두드렸다. 그는 종이 한 장

을 조심스럽게 평평한 작업대에 올려놓았다. 그러고 나서 그 종이 위로 틀을 닫아서 그것이 제 자리에 있도록 붙잡아두었다. 그는 그 틀을 잉크가 묻은 금속 조각들 위로 조심해서 포갠다. 그런 다음, 그 틀에 있는 종이를 압반이라고 하는 나무토막 아래로 굴러 넣었다. 그는 두 손으로 대형 목재 나사를 돌리는 레버를 잡아당겼다. 압반이 종이와 금속 위를 무겁게 짓눌렀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종이 틀을 굴러 다시 꺼냈다. 그가 그 틀을 들어 올릴 때, 그의 주위에 있던 사람들은 아무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들은 기다리면서 숨을 죽였다.

p.38~39

그 종이 틀이 금속판들로부터 당겨 떼어질 때, 입을 맞추는 듯한 소리가 났다. 요하네스가 틀을 열 때 모두가 그 종이를 보기 위해 몸을 앞으로 바짝 기울였다. 그는 마르지 않은 잉크가 묻은 종이를 들어 올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창문으로 흘러들어오는 빛 속에 그 종이를 추켜들었다. 방 안에 있던 사람들은 환호하면서 손뼉을 쳤다. 구텐베르크가 방금 자신의 새로운 발명품인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독일 시한 편을 인쇄했던 것이었다! 그는 단순히 자기가 인쇄를 하는 더 빠른 방식을 하나 새로 만들고 있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의 발명품은 세계의 역사를 바꿔놓았다.



구텐베르크의 초기 시절

구텐베르크는 대략 1398년에 독일 마인츠에서 태어났다. 그의 가족은 부유했고, 아버지는 교회 조폐소에서 일했다. 그는 동전을 찍어내는 금세공인이었다. 요하네스는 아버지로부터 금세공 일을 배웠다. 아주 어린 나이 때부터 구텐베르크는 많은 여러 종류의 금속을 가지고 작업했다. 1411년경, 구텐베르크의 가족은 스트라스부르로 이주했다. 그는 그곳에서 학교를 마쳤다. 1448년에 그는 마인츠로 돌아왔다. 그는 인쇄기를 만들고



사업을 시작하는 데 필요한 것들을 사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 1450년까지, 그는 자신의 새로운 구텐베르크 인쇄기로 인쇄를 하고 있었다.

p.40~41



구텐베르크 인쇄기는 가동 활자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을 사용했다. 그것으로는 책들을 대량 생산 하는 것이 가능했다. 그것은 하루에 수천 페이지를 인쇄할 수 있었다. 구텐베르크는 어떻게 가동 활자로 인쇄할 생각을 해냈을까? 그것을 확실하게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구텐베르크는 그것으로 인쇄를 시작할 때까지 자기 생각을 비밀에 부쳤다. 그러나 구텐베르크의 발명품보다 200년도 더 이전에 유사한 조판이 한국과 중국에 존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구텐베르크는 새로운 기법을 발명하고 그 인쇄 기술을 유럽에 소개했다는 공적을 인정받고 있다.

가동 활자를 이용한 인쇄기라는 그의 발명품은 유럽의 르네상스 시대 동안에 지식 확산의 시발점이었다. 그 이전에는 책들이 수공으로 만들어졌다. 책을 인쇄하는 한 가지 방법은 목각으로 하는 것이었다. 누군가가 목판 하나에 책 한 페이지씩을 새겨야 했다. 그런 다음, 그 목판에 잉크를 바르고, 그 위에 종이를 한 장 올려놓았다. 이런 방식의 인쇄는 매우 더뎠다.



p.42~43



다른 책들은 손으로 베꼈다. 사제나 수도사들이 그렇게 베끼고 그림을 그려 넣고는 했다. 책 한 권을 베끼고 그림을 그려 넣는 데 1년까지도 걸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이 두 가지 방식들로 인해 책은 아주 비쌌다. 대부분의 사람

은 결코 책을 살 여유가 없었고, 따라서 많은 사람이 구태어 글 읽기를 배우려 하지도 않았다. 1500년대 까지, 새로운 인쇄기는 유럽 전역에 들볼처럼 번져 나갔다. 사람들은 똑같은 책들을 인쇄하고, 그것들을 어느 곳이든 유통할 수 있었다.

최초의 인쇄본 성서

1455년 무렵에 요하네스는 소위 구텐베르크 성서라고 하는 것을 거의 200부 인쇄했다.



그 성서의 대다수 페이지는 42행이었고, 그래서 그것들이 모든 페이지에서 똑같은 서식을 가질 수 있었다. 그는 구획 인쇄로 조판을 했는데, 그것은 여백들이 곧고 똑같은 크기라는 의미였다. 어떤 것들은 종이에 인쇄됐고, 어떤 것들은 동물 가죽인 피지에 인쇄됐다.

p.44~45

일단 한 페이지가 인쇄되면, 잉크가 마르도록 그것을 매달아두었다. 그다음에, 채색사라고 하는 사람이 그 페이지와 드롭 케이스 글자들에 그림을 그려 넣었다. 드롭 케이스는 한 단락의 시작부에 들어가는 큰 글자 모양이다. 그 페이지들은 폴리오라고 하는 부분들로 같이 꿰매졌다. 그리고 나서, 그 폴리오들은 책 형태로 같이 제본되었다.



구텐베르크는 자신의 성서를 권당 30플로린에 팔았다. 이것은 대충 한 사무원이 3년 동안에 벌 수 있는 액수의 돈이었다. 그렇기는 하지만, 구텐베르크 성서는 심지어 그가 인쇄를 시작하기도 전에 전부 팔려나갔다. 구텐베르크 성서



는 귀중한 문헌이다. 심지어 한 폴리오나 한 페이지조차 수백만 달러의 가치가 있을 수 있다. 오늘날 구텐베르크 성서나 그 일부들은 박물관과 대학 도서관들에 보관되어 있다. 그것들은 유럽 역사에서 이 시기에 대한 아름다운 증거이다.

p.46~47



그 후, 구텐베르크는 교회를 위해 다른 소책자와 문서들을 인쇄했다. 그는 심지어 라틴어 문법 교과서까지도 찍어냈다! 구텐베르크는 나이가 들었을 때인 1462년에 교회의 대주교와 분쟁을 벌였다. 그는 다시 마인츠를 떠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몇 년 후, 그는 공적들을 인정받았다. 그는 돈과 식량, 의복, 그리고 포노주를 상으로 받았다. 그가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시신은 마인츠에 묻혔다. 후에, 그 묘지는 파괴되었고, 그의 무덤은 없어졌다.

요하네스 구텐베르크가 정확히 어떻게 그의 최초 자동 활자를 만들었는지 확실히 아는 사람은 없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그의 발명품이 세상을 바꿔 놓았다는 사실이다. 역사상 처음으로,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글 읽기를 배울 수 있었다. 처음으로, 개인들이 책을 살 수 있었다. 처음으로, 지식과 정보를 누구나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유럽 전역의 사람들은 모든 종류의 문학을 인쇄하고, 새로운 생각과 새로운 방식의 사고를 확산시키기 시작했다. 구텐베르크 인쇄기가 없었더라면, 우리에게는 결코 과학 혁명, 종교 개혁, 또는 계몽 시대는 없었을 것이다.

3장. 버스 뒤쪽으로 이동하라

p.50~51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에서 피곤함에 지친 여인이 가방을 올려 들고 버스 계단을 올라왔다. 그녀는 운전사에게 버스 요금으로 동전 몇 개를 건넸다. 버스에 '백인 앞쪽, 유색인 뒤쪽'이라는 표지판이 있었다.



그 표지판은 버스의 몇 줄 뒤 좌석 하나에 부착되어 있었다. 오직 백인들만이 버스 앞쪽의 그 표지판 앞에 앉을 수 있었다. 흑인들은 그 표지판 뒤에 앉아야 했다. 로사 파크스는 흑인들이 앉을 곳의 첫 번째 열에 앉아 가방을 무릎 위에 올려놓았다.

p.52~53

버스가 정차하고 승객들을 더 태웠다. 백인 구역이 가득 찼다. 다음 정거장에서 백인 남성 한 명이 버스에 올랐다. 그는 날찍한 어깨에다 얼굴 가득 미소를 띠고 있었다. 그는 요금을 내면서 버스 운전사와 농담을 주고받은 다음, 자리를 찾기 위해 몸을 돌렸다. 그가 첫 번째 흑인 열에 앉은 그 여인을 보았고, 그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그라들었다. "이봐요, 블레이크 씨," 그가 버스 운전사에게 말했다. "앞쪽 백인 구역에는 자리가 더 없네요." 버스 운전사가 거울을 쳐다보았고, 그 백인 남자의 말이 맞다는 것을 알았다. 블레이크 씨는 한숨을 쉬며 통로를 걸어왔다. 그는 표지판을 두 열 뒤쪽으로 옮겼다. "당신들 모두 옮겨야겠소." 그가 로사의 열에 앉아 있던 흑인 네 사람에게 말했다.



p.54~55

그 사람들 중 세 명은 버스의 더 뒤쪽으로 옮겨 갔다. 로사도 움직였지만, 뒤쪽으로 옮겨 가지는 않았다. 그녀는 바로 그 열의 창가 쪽 좌석으로 옮겨 갔다. "당신은 여기 앉을 권리가 없소." 블레이크 씨가 그녀에게 말했다. 로사는 그 버스 운전사를 올려다보았다가는 얼굴을 돌려 창밖을 내다보았다. 그



녀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블레이크 씨는 그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지시에 따르는 흑인들에게 익숙해 있었다. 아무튼, 그는 백인이었다. 그뿐만 아니라, 버스 운전사로서 그는 버스에서 인종 분리법을 집행할 수 있었다. “당신이 내 말을 못 들은 게로군.” 그가 말했다.

“아니요, 당신 말을 제대로 들었어요.” 로사가 대답했다. 그녀는 말을 하면서도 창문에서 얼굴을 돌리지 않았다. “당신이 나한테 버스에서 내려 뒷문으로 타라고 했던 그때와 똑같이 잘 들었어요. 그리고 그대로 떠나버려서 나를 덩그러니 버스 정거장에서 있게 했었죠.” 블레이크 씨의 얼굴이 화가 나 벌겍지기 시작하자, 그녀의 뒤쪽 좌석에 있던 사람들이 조마조마해 하며 자리를 옮겼다. 몇 주 전, 그는 로사에게 비열한 장난을 쳤던 것이었다. 이제 그는 로사가 그것을 잊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다.



p.56~57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버스 뒤쪽으로 옮겨 가라고 충고하고 싶소.” 그제야 로사는 몸을 돌려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내가 왜 그래야 하죠?” 그녀가 물었다. “그는 백인이기 때문이고, 그게 이유요. 그는 버스 앞쪽에 있는 여기 이 자리에 앉을 자격이 있단 말이요. 당신의 자리는 뒤쪽이요.” 블레이크 씨가 목소리를 차분하게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 동안, 그의 콧구멍이 벌름거렸다. “당신은 지금 저 사람 피부가 나와 다른 색이기 때문에 저 사람은 자기가 앉을 곳을 고를 수 있고 나는 그럴 수 없다고 말할 셈 인가요?” 버스 운전사는 더 뒤쪽에 있는 좌석들을 가리켰다. “그에 대한 대답은 당신이 알고 있잖소.”



로사 파크스는 턱을 추켜들고 어깨를 폈다. “그래요, 알고 있는데, 그건 옳지 않아요. 그래서 나는 자리를

옮기지 않겠어요. 1인치도 못 옮겨요.” “파크스 부인.” 그가 온화하게 말했다. “우린 여기서 말썽을 일으키고 싶지 않아요. 그냥 일어나서 부인이 응당 해야 하듯이 버스 뒤쪽으로 옮기세요.” 안경 너미 로사 파크스의 눈이 커졌다. “싫어요. 난 옮기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나는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소.” 블레이크 씨는 로사가 움직이기를 기다렸다. 로사는 자기 좌석에 그대로 앉아 있었다. “그렇게 하세요.” 그녀가 그에게 말했다.

p.58~59

버스 운전사는 운전석으로 돌아가 경찰을 불렀다. 경찰이 도착했을 때도 로사는 여전히 자리 옮기기를 거부했다. 그녀는 팔을 들어 손가락으로 자기 주위에 있는 백인들을 가리켰다. “이 사람들은 자리를 옮기지 않을 거잖아요.” 그녀가 그들에게 말했다. “나도 자리를 옮기지 않을 거예요.” 곧 로사 파크스는 버스에서 내려 교도소로 호송되고 있었다. 그녀가 무슨 잘못을 저질렀던 것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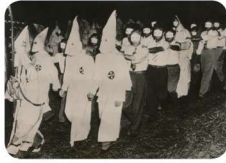
로사 파크스의 유년 시절



로사 루이스 맥컬리는 교사와 목수의 조용하고 공손한 딸이었다. 그녀의 어머니는 항상 그녀에게 교육을 받도록 격려해 주었다. 1920년대 앨라배마주에서 어린 흑인 여성에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백인과 흑인들은 다르게 취급받았다. 그들은 다른 교회, 다른 학교, 그리고 심지어 다른 식수대를 가졌다.



p.60~61



이런 인종 차별은 KKK라고도 불리는 큐클럭스 클랜에 의해 훨씬 더 심화되었다. 그들은 흑인들을 겁박하

고, 흑인들이 불공정한 법에 저항하는 것을 막기 위해 폭력을 사용했다. 로사가 십 대일 때, 어머니가 병들어서 그녀는 어머니를 돌보기 위해 학교를 그만두어야 했다. 훗날, 그녀는 레이먼드 파크스를 만났다. 그는 앨라배마주 몽고메리의 이발사였다.

그들은 1932년에 결혼했다. 남편으로서, 그는 그녀에게 고등학교를 마치라고 격려했다. 그래서 로사는 복학해서 졸업장을 땀다. 레이먼드와 로사는 인종 차별이 옳지 않다고 생각했다. 로사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마치 귀하지 않은 것처럼 취급하고도 처벌받지 않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녀는 백인들이 흑인들을 때리는 것을 보았고, '유색인 전용' 또는 '백인 전용'이라고 적힌 표지판들도 보았다. 로사는 모든 사람이 동등하게 대접받아야 한다는 것을 증명하고 싶었다.



p.62~63



1955년 12월 1일, 로사 파크스는 인종 차별에 넌더리가 났다. 그녀는 그 버스에서 백인석에 앉음으로써 저항을 했던 것이었다. 로사 파크스는 체포된 후, 분

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행위로 10달러의 벌금을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 로사는 벌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법이 공정한 것인지 법원이 판단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가 로사의 상황에 대해 들었다. 그는 그녀에게 일어났던 일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흑인 공동체를 규합했다. 그들은



몽고메리 버스들을 보이콧하는 데 동의했다. 이것은 그들이 출퇴근이나 다른 어느 곳을 갈 때도 더 이상 버스를 타지 않겠다는 의미였다. 이것은 시에도 힘들겠지만, 아프리카계 미국 시민들에게는 훨씬 더 힘든 일이었다.

p.64~65

그들 대부분은 차를 소유하고 있지 않았다. 버스 없이 일터에 가기 위해 많은 사람이 걷거나, 자전거를 타거나, 혹은 승용차 함께 타기를 해야 했다. 그들 중 일부는 심지어 마차까지 사용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계 미국인 택시 운전사들은 운임을 10센트로 인하했다. 그것은 버스 승차와 똑같은 가격이었다. 비록 이렇게 하기 어려웠지만, 흑인 공동체는 하나가 되어 1년 넘게 몽고메리 버스들을 보이콧했다! 그 보이콧은 381일 동안 지속되었다. 그것은 대법원에서 앨라배마주의 인종 분리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마침내 끝이 났다. 그 보이콧은 많은 백인이 시민의 평등권 운동 지도자들에게 화가 나게 했다. 정부는 택시 운전사들이 최소한 45센트를 받지 않으면 벌금을 내도록 하기 시작했다. 로사 파크스는 협박을 받았고, 재봉사 일자리에서 해고되었다. 다른 흑인들은 공격을 받았다.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의 집은 폭탄 공격을 받았다.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는 평화를 선포했다.



p.66~67

로사에게 있었던 또 다른 일들



로사와 레이먼드는 1957년에 미시간주 디트로이트로 이사를하기로 결정했다. 디트로이트에서 지낸 시절에도 로사 파크스는 걸코 시민의 평등권을 위한 투쟁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미 하원의원 존 코니어스의 비서로 일했다. 그들은 함께 모든 사람을 위한 평등한 대우를 위해 투쟁했다. 로사는 특히 백인 남자들

에게 학대당했던 흑인 여성들을 돕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수년에 걸쳐, 그녀는 시민 평등권의 우상이 되었다. 사람들은 잘못된 것들과 싸우는 그녀의 용기 때문에 그녀를 존경했다. 그녀는 의회 금메달과 대통령 자유 훈장을 받기도 했다. 이것들은 둘 다 최고의 상이다. 2005년에 있었던 그녀의 장례식 날, 조지 부시 대통령은 미국 내의 모든 국기를 조기로 게양하도록 지시했다. 일생을 통틀어, 로사는 겸손함을 잃지 않았다. 그녀가 말한 유명한 문구가 있다. “저는 자유롭기를 원했던 사람으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유롭기를 바랐던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4장. 이 장벽을 무너뜨려라

p.70~71



1989년 크리스마스는 베를린에서는 특별한 날이었다. 그것은 이전에 있었던 어느 크리스마스와는 전혀 달랐다. 한 교향악단이 베를린에 있는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공연을 했다. 베토벤의 클래식 곡 ‘환희의 송가’가 그들의 악기에서 울려 나왔다. 그러나 ‘환희’라는 단어 대신, 그들은 그것을 ‘자유’라고 불렀다. 아름다운 음악이 공중에 퍼질 때, 사람들은 서로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고, 축하했다. 그와 동시에, 그들은 그 도시 주변의 거대한 벽을 허물고 있었다. 왜일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축하하고 있었던 것일까?

p.72~73



1961년 8월부터 1989년 11월까지, 12피트 높이의 벽이 동독과 동베를린으로부터 서베를린을 갈라놓았다. 동베를린에 있는 사람들은 그곳을 떠나 서베를

린에 가는 것이 허용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신들의 도시에 갇혀 있었다. 많은 사람이 탈출을 시도했다. 어떤 사람들은 도망쳤고,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탈출하려다 목숨을 잃었다. 그리니 1989년 11월 9일에 그 모든 것이 변했다. 군중들이 정문인 브란덴부르크 문에 모였다. 사람들은 대형 망치를 가지고 나와 그 벽을 쪼아내기 시작했다. 그 벽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그들이 작업하고 있는 동안, 크로스비, 스틸스 & 내시라는 유명 밴드가 ‘조금씩 계속 쪼아내면’이라는 노래를 연주했다.

이것은 겨우 장벽 해체의 시작에 불과했다. 1년 동안, 축하 행사들이 계속되었다. 새해 전날, 데이비드 하셀호프가 장벽 위에 서서 ‘자유를 찾아’를 노래했다. 사람들은 계속 장벽을 허물면서 즐겁게 지냈고, 서로 얼싸안았다. 장벽에 구멍이 난 곳들에서는 사람들이 손을 뻗어 반대편에 있는 경비병들과 악수를 했다.



p.74~75

이것은 역사상 하나의 중요한 시점이었다. 그것은 소련에서의 공산주의의 붕괴를 상징했다. 이것은 수많은 세월 동안 장벽 뒤편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삶의 방식을 열어 주었다. 그것은 러시아와 미국 간 새로운 관계의 시발점이었다.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독일은 분단국이었다. 독일의 서쪽 부분은 민주주의 정부를 가졌고, 동쪽 부분은 공산주의 정부를 가졌었다.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이데올로기, 즉 이념 체제들은 또한 냉전이라고 알려진 것을 만들어냈다. 폭탄이 투하되지도 않았고, 전투도 하지 않았다. 그 전쟁은 어떤 형태의 정부가 최상이냐에 대한 것이었다. 독일의 나머지 부분처럼 베를린시도 다른 나라들의 지배를 받는 4개의 구역으로 나누어졌다. 영국, 프랑스, 그리고 미국이



서베를린을 관리했다. 소련이 동베를린을 관리했다. 문제는 베를린 자체가 동독에 완전히 둘러싸여 있다는 것이었다.

p.76~77



서독은 식량과 의류가 풍족했고, 민주주의 정부 하에서 사람들은 많은 자유를 누렸다. 동독에서는 식

량, 의류, 그리고 여타 물품들이 부족한 경우가 잦았다. 사람들은 언론의 자유나 다른 자유도 없었다. 이런 상황들을 벗어나기 위해, 동독 사람들은 서베를린으로 넘어갔다. 거기에서 그들은 자유롭게 서방 국가들로 갈 수 있었다. 떠나는 사람 중에 많은 이들이 교육 수준이 높은 교사, 의사, 그리고 기술자들이었다. 공산주의 정부는 이런 사람들을 잃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그들은 특별한 비밀 계획을 수립했다. 1961년 8월 12일 밤, 서베를린 시민들은 평상시와 다름 없이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도시를 완전히 빙 둘러 철조망 울타리가 설치되고 있었다. 동독 병사들이 총을 들고 그 울타리를 경비했다. 그들은 아무도 그 울타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있었다. 그들은 정문인 브란덴부르크 문을 폐쇄했다. 소련과 동독의 전차들이 도시 경계를 순찰했다.



p.78~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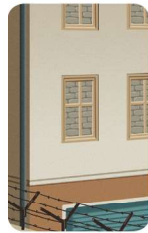
날이 가고 달이 가면 서, 동독 정부는 주민들이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 콘크리트 블록들을 12피트 높이까지 쌓아 벽을 세웠다. 결국, 장벽은 그 길이가 100마일이 넘게 되었다. 그러나 이 크기의 장벽조차 자유를 찾아 탈출하려는 사람들을 막지는 못했다.

사람들은 장벽을 통과하기 위한 방법들을 생각해내는데 아주 창의적이었다. 어떤 사람들은 비단을 꿰매 열기구를 만들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서, 동독 정부는 비단과 다른 가벼운 직물들을 불법화했다. 어떤 사람들은 밧줄을 이용하여 장벽을 올랐다. 그러나 동독 정부는 밧줄을 불법화했다. 서베를린에 있는 제과점으로부터 동베를린에 있는 옥외 화장실까지 땅굴을 파기도 했다. 그것은 발각되어 파괴되었다. 다른 사람들은 강을 헤엄쳐 건너려 하거나 장벽을 뛰어넘으려고 했다.



p.80~81

하르처 스트라세라는 거리에는 4층짜리 공동주택 건물이 있었다. 그 거리는 서베를린에 있었지만, 그 공동주택 건물은 동베를린에 있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공동주택의 창문 밖으로 뛰어내려 서베를린에 있는 거리에 떨어지기도 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동독 병사들은 그 건물의 그쪽 편으로 닫히는 모든 창과 문들에 못을 박았다. 그리고 나서 창과 문들을 벽돌 벽으로 만들었다. 그들은 그 건물을 베를린 장벽의 일부로 만들어버렸다.



베를린 장벽에는 300개가 넘는 감시탑이 있었다. 경비병들은 그 벽을 기어오르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든 사살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한 지역은 온통 지뢰와 인계철선이 깔려 있었다. 그곳은 '죽음의 지대'라고 불린 자갈 지대였다. 이 지역은 동베를린에 있는 건물들과 장벽을 분리했다. 누구든 여기에서 탈출하려는 사람은 '죽음의 지대'를 가로질러 가야 했다. 2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독에서 탈출하려다가 목숨을 잃었다.



p.82~83

자유를 위한 새로운 날들



1985년에 미하일 고르바초프라는 새로운 지도자가 소련의 서기장이 되었다. 그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고 싶어 했다. 그는 러시아 정부를 위한 새로운 정책들을 만들

었다. 하나는 개방을 의미하는 '글라스노스트'로 불렸다. 또 하나는 민주적 개혁 또는 개편을 의미하는 '페레스트로이카'라고 불렸다.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은 소련과 미국 사이의 평화를 위해 일했다. 1987년, 그는 서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문에서 유명한 연설을 했다. 연설에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 "서기장님, 이 장벽을 허물어 버리십시오!" 동베를린에 있던 사람들은 그 장벽에 대해 점점 더 분노가 심해졌다. 1987년에 데이비드 보우리는 유명한 록스타가 서베를린을 찾았다. 그는 독일에 살았던 적이 있었고, 그곳 사람들은 그의 음악을 사랑했다. 그의 콘서트 동안, 동베를린 쪽 사람들이 소요를 일으켰다.



p.84~85

이어서 1988년에는 브루스 스프링스틴이 동베를린에서 콘서트를 열었다. 그는 그곳 사람들에게 말했다. "나는 언젠가 이 장벽들이 허물어지길 바랍니다." 그 이후로 2년에 걸쳐, 사람들이 점점 더 그 장벽을 싫어하게 되면서 더 많은 소요가 일어났다. 1989년 11월 9일에 동베를린 사람들이 이제 서방으로 여행할 수 있다는 발표가 있었다. 기자회견을 하는 동안, 대변인은 서방으로 통하는 문들이 개방



될 것이라는 메시지를 읽었다. 회견 기자가 물었다. "그것은 언제 시행됩니다?" 대변인은 자신

의 메모를 다시 읽었다. 그러고는 말했다. "지금 당장입니다."



사람들은 장벽을 따라 이곳저곳으로 경쟁하듯 달려갔다. 그들은 경비병들에게 소리쳤다. "문들을 열어라!" 또 어떤 사람들은 장벽 꼭대기로 기어 올라갔다. 경비병들은 문들을 개방할 수밖에 없었다. 11월 10일, 수많은 사람이 자유를 축하하기 위해 브란덴부르크 문을 통과하여 쏟아져 나왔다. 그들 중 일부는 대형 망치, 끌, 해머, 그리고 곡괭이들을 이용하여 장벽에서 조각들을 깨냈다. 이 사람들에게겐 '장벽 딱따구리'라는 별명이 붙여졌다.

p.86~87

그 장벽의 큰 조각들은 전 세계의 박물관과 기념관들로 보내졌다. 작은 조각들은 사람들이 이 자유의 날을 기억하는 것을 돕기 위한 기념품으로 팔렸다. 장벽의 동쪽 부분의 조각들은 멋진 회색이다. 동쪽의 경비병들은 누구도 장벽에 접근하거나 만지는 것을 절대로 허용하지 않았다. 서쪽 사람들에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가 있었으며, 그들은 자유에 대한 낙서로 장벽을 뒤덮었다. 오늘날, 만약 여러분이 장벽 조각을 하나 보게 된다면, 그것이 어느 쪽이 동베를린을 마주했었고, 어느 쪽이 서베를린을 마주했었는지를 구별할 수 있게 해 주는 방법이다.

